

‘스마트농업 1번지 강진’ 청년농 경쟁력 키운다

25억원 투입 스마트팜 6개소 조성
자동·원격 환경관리 ICT 기술 적용
노동력 절감·작물 생육 안정화 도움

강진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팜 6개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창업·정착 지원금과 창업농장 조성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스마트팜 지원으로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영농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성된 스마트팜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기준’에 따른 1천500㎡ 이상의 온실로, 양액재배 시설과 냉·난방 장치, 복합 환경제어 시설을 갖췄다. 자동·원격 환경관리 ICT 기술이 적용돼 노동력 절감과 작물 생육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강진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딸기를 수확한 강남욱 농업인.

〈강진군 제공〉



강진군 송지은 농가 스마트팜 온실 내부 전경. 자동 환경제어 시설로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소 사업에 2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지원금은 60%, 자부담금은 40%로 형성해 청년농의 초기 영농 부담 비용을 크게 줄였다. 스마트환경제어기를 통한 자동 냉난방·관수 시스템은 이상기후와 돌발 악천후에 대응해 온

실 환경을 최적 상태로 유지한다. 한 수해 농가는 스마트팜 덕분에 장미 싹품종·우량 묘목 6천주를 직접 생산해 지역 농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로 불안정해진 묘목 공급 시장에서 스마트농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된 스마트팜 기술은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환경제어 시스템은 매시간 기상 상황과 온실 안팎의 환경을 감지해 데이터를 저장하며 이를 시각화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드는 데 활

용한다. 특히 딸기 재배의 경우 겨울철 크리스마스와 설 대목에 맞춰 2회방 과실을 연속 출하하는 것이 매출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한 수해 농가는 “환경 데이터에 기반해 적절한 시기에 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면 연속 출하는 더 이상 운이 아닌 확실한 재배 방식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 재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정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시설 확대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스마트농업 교육, 실증 재배단지 연계 등을 추진해 청년 친화형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이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농과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해답”이라며 “강진을 전남 스마트농업 선도지역으로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 항구축제 솟품 공모전

20일까지 접수...30초 이내 영상 제출

목포시가 ‘2025 목포 항구축제 솟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목포 항구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내 마음의 목포 항구’로, 목포 항구의 풍경·감상·사람·일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3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이면 된다. 브이로그, 스케치코미디, 패러디 등 형식과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목포 항구축제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팀 참가도 가능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한다. 출품작은 개인 SNS(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목포공모전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공개로 게시 후 영상 파일과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rhksdnl58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창의성·작품성·대중성·활용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다음달 5일 목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원)이다. 박인지 목포시 관광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목포 항구의 매력을 짧지만 깊이 있게 담아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3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혜선 기자

“새로워진 해남8미”...미식관광 활력 기대

지역 상징 식재료로 메뉴 재정비
닭코스·갯장어·고구마 디저트 등

해남군의 대표음식 ‘해남8미’가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메뉴로 재정비됐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대표음식위원회를 열어 지역 먹거리 브랜드 ‘해남8미’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개편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취급 업소가 적거나 타 시·군과 차별성이 부족한 메뉴를 제외하고 해남의 상징성과 특색이 뚜렷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롭게 지정된 8미는 ▲해남식 닭코스 요리(사진) ▲대흥사 보리쌀밥 ▲해남김쌈 삼치회 ▲해남황칠요리 ▲땅끝한우요리 ▲해남밥상 ▲여름 갯장어 ▲고구마 디저트다. ‘해남식 닭코스 요리’는 닭회, 불고기, 백숙, 구이, 죽 등 다양한 닭요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이며, 대흥사 보리쌀밥은 청정 환경에서 보리밥과 나물, 채소쌈을 곁들여 맛



보는 건강식이다. 해남김쌈 삼치회는 겨울철 별미로, 목은지와 밥을 곁들여 먹는 ‘삼치삼합’이 인기다. 또한 해남은 황칠 주산지로 황칠오리백숙 등 다양한 황칠요리가 발달했으며 땅끝한우요리는 해남산 한우를 활용한 구이·샤브샤브로 고급 육질이 특징이다. 여름 갯장어는 회나

샤브샤브로 즐기며, 특히 뼈를 우려낸 국물에 살짝 익혀 먹는 샤브샤브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다. ‘해남밥상’은 해남 한정식의 개념을 확장해 해남산 농수산물로 구성된 한상차림이며, 해남군 농수특산물 밥상의 공식 브랜드로 채택돼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고구마빵과 음료, 간식 등 해남고구마 디저트도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8미’에 포함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8미는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미식관광의 주요 코스로 자리잡았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대표음식점과 맛집을 발굴해 미식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받으세요”

51세 이상 검진비 전액 지원

완도군은 11일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50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검진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1세 이상(1974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여성 가운데 어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단 지난해 특화 건강검진 지원을 받았거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오는 12월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대상병원 또는 급임마취통증의학과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도서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일(노화·보길)과 20일(소안)에는 이동 검진 버스를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제때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독립운동가 유족 위문

광복 80주년...故이명범 지사 추모

우승희 영암군수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덕진면 출신 독립운동가 이명범 애국지사의 유족을 찾아 위문했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우 군수는 이 애국지사 손자인 이윤행 씨의 덕진면 냉천동마을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을 널리 알릴 것을 약속했다. 〈사진〉의 (做) 이명범 애국지사는 1932년 6월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회원 70여명과 소작권 이동 방지를 주도했다. 윤암리와 백계리의 지주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응징한 후 ‘소작쟁이 만세’ ‘노동가’ 등을 부르며 시위행진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공훈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민과 함께 이명범 애국지사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감사

전하는 날로 광복 80주년을 맞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군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나라사랑 캠페인’을 지원해 청소년 자원봉사자 20명이 제작한 바람개비로 삼호읍종합문화체육센터 입구에 태극기 공원을 조성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청소행정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쿨링조끼·생수 등 배부

신안군은 11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청소행정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조치는 30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행정 종사자들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군은 지난 8일까지 청소행정 종사자 95명에게 쿨링조끼, 팬 부착형 안전모와 생수 300병 등 안

전보건 물품을 지급했다. 또 폭염 시 읍·면별 자체적으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청소행정 종사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온열질환이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소행정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영광 청소년문화축제 30일 개최

문화예술의전당·광장서

체험·공연·게임 등 다채

영광군이 오는 30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과 광장에서 ‘2025년 제12회 영광군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축제는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주관하며 ‘락(樂)’이 넘치는 청소년의 한마당 축제! 즐겨락! 뽀레락!’이라는 슬로건 아

래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종합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진로·4차 산업 관련 체험부스가 있는 체험마당 ▲학습·정서 프로그램이 포함된 잡여마당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락 ▲간식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 ▲축석 시상 이벤트인 솟품

대회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무대에서 만나보는 공연무대 등이 운영된다. 공연무대는 영광군 내 12~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예선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이뤄진다. 본선은 축제 당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초대기수 ‘서울피스톨즈’의 특별공연도 준비돼 있다. 청소년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자람터오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1-353-9188)로 가능하다. /영광=김동규 기자